

동서냉전의 두 주연 정치가

케네디와 흐루시초프의 시대 다룬 「위기의 시대」



냉전시대의 두 주역 케네디와 흐루시초프

1961년 비엔나 정상회담의 자리에서 흐루시초프 서기장과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쟁점이었던 베를린문제 격론을 벌였다. 동독 깊숙이 자리잡고 있던 이 분할된 도시는 크레믈린 당국자에게 마치 목의 가시처럼 여겨졌다. 흐루시초프는 자기 아들보다 어린 연배의 상대에게 6개월 내에 소련에 우호적인 독일인들의 서베를린 거주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베를린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의 동독관할권을 인정하는 조약에 서명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미카엘 베쉬로스(Michael R. Beschloss)의 빼어난 新書 「위기의 시대」(*The Crisis Years: Kennedy and Khrushchev, 1960-1963*), 816pp. New York: Edward Burlingame Books/Harper Collins Publisher)에는 차갑고 격정적인 흐루시초프가 책상을 치면서 두달전 피그만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케네디를 몰아치는 장면들이 제연된다. “나는 평화를 원하고 있소. 그러나 당신이 전쟁을 원한다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 거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넓은 회의실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벽시계의 짹깹거리는 소리뿐...

분단된 도시, 베를린이 대살륙이나 아니냐 굴욕적인 항복이나 기로에 처한 진땀나는 이 상황에서 케네디의 답변은 “전쟁으로 내몰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입니다.”

냉전시대의 개막 이래 가장 위험한 순간들은 주로 케네디와 흐루시초프의 재임시에 있었다. 1960년에서 63년에 이르는 얼마되지 않는 세월 속에 세계핵전쟁이라는 가공할 순간이 몇번이나 오락가락했던 것이다.

이 기간에 벌어졌던 피그만 사건, 비엔나 정상회담, 잇따른 베를린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쿠바미사일사건은 전세계로 하여금 숨을 죽이고 공포에 떨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의 조종을 받은 카스트로의 암살기도 사건들로 촉발된 것이었다. 여기서 벗어난 두 강대국간의 갈등은 라오스 분쟁, 베트남에서의 전쟁발발로 확대되었다가 베를린을 가로지르는 장

벽의 건설, 그리고 미·소의 핵실험으로 더욱 깊은 골이 패이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당시 실무자들의 회고록이나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저술 등을 통해 한번쯤은 다 정리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시대」의 중요한 기여가 있다면 그것은 기존의 설명과 가설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이들을 두 탁월한 정치가들의 행태와 성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 있다.

핵시대의 외교를 개막한 케네디와 흐루시초프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관계가 매양 빠듯거렸던 만큼이나 ‘궁합이 맞지 않는 콤비’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사의 운명은, 전무후무하게 위험한 시대에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임무를 백만장자의 아들과 금속노동자출신의 인물에게, 또는 스마트한 도시풍 정치가와 촌스럽지만 노획한 정치가에게 맡겼던 셈이다. 한 사람은 분별없이 여자들과의 情事에 탐닉했다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무분별하게 국제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다녔다. 그러면서도 저자 베쉬로스가 지적하듯, 두 정치가들은 연극적인 인물인 반면, 번덕스럽게 외교적인 문제에 서둘렀다는 점에서 동질적이기도 하다. 요컨대 두 사람이 빛어내는 화학적 분비물은 섞기만 하면 확 타버릴 성질의 것이었다.

두 정치가의 성격과 행태 속에 잠재하는 이러한 인화點들은 이 시대에 빛어낸 갖은 강대국간의 분쟁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가령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는 가운데 찰리검문소 주변에는 양측의 탱크들과 병사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고, 쿠바미사일 사건 동안에는 미국의 첩보 비행기가 소련 미사일에 격추되고, 또 한 대는 시베리아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남에 따라 세계는 일촉즉발의 大戰의기에 시달렸다. 뿐만 아니라 쿠바에 무기를 상륙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모든 공산권의 선박들은 공해상에조차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는 미국의 ‘불법적인’ 경고로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던 것도 이들 두 정치가의 성격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한편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긴장을 곧바로 완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가까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련내부의 정보는 KGB내 첩보원이나 뉴스정보로부터 서방세계의 증계를 거쳐 ‘수동적으로’ 전해졌다. 쿠바위기 때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흐루시초프로부터 케네디의 손에 이르기까지에는 8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흐루시초프가 쿠바내 소련 미사일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 일요일이었는데 그당시 미국은 화요일에 공습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면 이 정보 전달의 시간소모는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사실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베쉬로스는 앞서 U-2첩보기 사건에 관련하여 「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한 적이 있고, 또한 케네디의 아버지와 루스벨트 대통령의 냉랭한 관계를 「케네디와 루스벨트」라는 책 속에서 서술한 바 있다. 베쉬로스가 이러한 일련의 저술을 쓰면서 축적한 여러 정보, 가령 케네디 도서관의 자료와 소련정보통들과의 대담 등을 이번 저술에서도 유감없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점이 본서의 탄탄한 구성에 기초가 되고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반면 이 방대한 책 속에는 몇가지 실수도 저지르고 있는데,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와 무기통제의 비밀정보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더욱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때때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설로써 사건을 해석해버리는 저자의 자의적인 태도에 있다.

후반부에 가서는 케네디와 흐루시초프를 둘러싼 문제의 분석보다는 당시의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학자들간에 논쟁을 일으켜왔던 쟁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데 많은 부분을 소모하는 것도 불필요한 부분이다.

저자는 미국의 핵무기체계가 어떻게 급속히 건설되었던가, 그리고 흐루시초프의 ‘고함소리’가 어떻게 미·소간 무기경쟁을 더욱 촉발시

켰던가를 능숙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케네디와 백악관의 참모들이 흐루시초프의 핵전쟁을 담보로 한 고함소리의 허구를 점차 확실하게 알수록, 그의 크레믈린 내의 위치는 더욱 곤경에 처해가는 과정도 요연하게 분석하고 있다.

점증하는 전략무기의 불균형에 대한 조급함과 카스트로의 혁명을 보호하려는 필요성이 흐루시초프로 하여금 쿠바미사일 위기로 내몰고 갔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인 셈이다. 한편 케네디의 상대에 대한 참을성과 흐루시초프의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상식 덕분에 ‘냉전’의 위기가 ‘열전’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구 기술문명의 강력한 비판 「생물권 정치학」

새로운 환경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술문명을 죄악시하고 자연을 聖化하는 논리를 취하기 마련이다. 기술문명은 지역의, 보다 크게는 한 지방의, 나아가 전 지구의 환경체계를 망가뜨리는 파괴자의 이미지로 와달고, 반면 더럽혀지지 않은 자연은 생기를 불어넣고 삶의 영양을 공급하는 샘으로 여겨진다. 이런 식으로 세계를 도식화하다보면, 인간은 여타 생물체와는 격리되어 지구의 파괴자로 자리잡게 된다. 생산자로서의 인간이 어느덧 약탈적인 소비자로 변하는 것이다.

목청높고 열정적인 기술문명의 비판자이면서 스스로 현대사회의 이단자로 자처하는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11번째의 저서, 「생물권 정치학」(*Biosphere Politics: A New Consciousness for New Century*), 338pp. New York: Crown Publishers)을 통해 반기술문명의 강력한 주장을 다시금 제출하고 있다. 「생물권 정치학」은 지구를 오늘의 치명적인 상태로 몰고온 환경악탈의 주범은 서양의 직선적 發展史觀에 있다고 본다. 안락함과 영생불멸을 추구하는 서구인의 사된 욕심이 산업화를 통해 서방세계로

하여금 자연의 질서와 결별하게 만 들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이 경향의 기원을 고리대금업의 성장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자극하기조차 했던 로마 카톨릭의 속죄개념에서 찾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부에 의한 속죄의식을 통해 영원한 정벌의 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돈놀이는 점차 눈부신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자본주의- 곧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필연적인 추세가 되고 만다.

리프킨의 안목으로는 근대화의 추진력은 15세기 영국의 엔클로저 운동으로부터 일정한 양식으로 정착되어 18세기쯤에는 전 유럽대륙의 양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땅, 바다, 그리고 공기조차 인간의 삶에 '유용한 가치'의 개념 속에 구획되어 상품화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실제로 모든 기술적 혁신, 이를테면 일상적 機器에서부터 인쇄 기계, 근대농업, 생명공학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상품화의 과정은 그대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참된 주모자들은 존 로크, 데카르트, 그리고 베이컨 등 근대 서구철학자들이라고 지목한다. "초창기 근대 철학자들과 그 후예들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보다 많은 소비-물질적 진보-가 곧 훨씬 인간적인 삶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자연환경에 더욱 소외되어, 더욱 비인간적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지도조차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전통에 반하여 리프킨은

아직은 희박하지만, 하나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인간들이 의식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함으로써 자연은 공포와 종속이 아닌 사랑과 자유의지가 되살아날 것이고 또한 인간은 자연 속에서 다시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연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인간도 "생물권 내에 안전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본서가 대단한 설득력을 가진 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역사 해석상 몇가지 문제로 인해 주장이 훼손되는 안타까운 점도 갖고 있다. 가령 엔클로저운동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그 현저한 예시이다. 엔클로저운동은 거대한 생태학상의 혁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점은 당시 빅토리아시대의 사람들도 감지하고 있던 문체였다. 저자 리프킨은 봉건 농노들의 삶을 땅에 뿌리박은 "자족적 공동체" 속에서의 삶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봉건제는 수백년동안 이들에게 "정신적 측면에서나 물질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봉건농노들의 삶이란 참으로 열악하고 잔인하며 평균수명도 짧은 것이었다.

또 한가지는 사회변화의 배후에 잠재되어 있는 변화의 '추동력'이라는 개념도 저자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이 개념 역시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서의 구성이 지나치게 많은 章節로 나뉘어 있는데 반해(42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논리의 전개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28장은 기껏 두페이지에 불과하다) 자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큰 결점으로 지적되어야겠다.

80년대 미국사회의 청소년문제 다룬 「황폐한 십대」

1987년 3월 미국 뉴저지주 버겐 필드의 교외에서 10대 소년 4명이 집단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도나 게인스(Donna Gaines)는 침통하면서도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금 회상했다. 사회학자이면서 「빌리지 보이즈」에 글을 쓰는 언론인이기도 한 게인스는 롱 아일랜드의 청소년문제 상담가로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 스스로가 20년전에는 마약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를 겪었던 사람이며, 또한 주변에는 마약중독으로 치료감호소에 있거나 이미 죽어버린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황폐한 십대」 ("TEENAGE WASTELAND, Suburbia's Dead End Kids", 262pp. New York: Pantheon Book)의 저자 게인스에게 버겐필드는 자신의 학위논문의 소재이기도 했고, 때문에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더욱 느끼는 듯한데, 그러나 본서에서는 왜 4명의 십대가 비어있는 차고에 문을 잠그고 죽어야 했든가를 개인적 차원에서 따지기도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피우는가'라는, 일종의 거시적 문화론의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 4명의 청소년들에게 기성문화에

반항하는 어떤 고귀함-말하자면 학교와 가정에서 가르치는 위선에 대한 조소를 발견한다. 그들은 몇몇 마음에 맞는 또래들과 자신들의 절망을 음악으로 표현해주는 헤비메탈 밴드, 이를테면 메탈리카 그룹 외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저자 게인스의 주장의 핵심은 후기 산업사회에 이른 미국사회는 이들 근로자 자녀들의 한계적 삶을 해방시켜 줄 지위상승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 지위상승이 실체가 아니라라도 좋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있다. 1960년대라 젊은이들이 방랑을 통해 사회적 경험을 얻음으로써(저자 자신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라에서 구출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절망을 치유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나마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게인스는 한탄한다.

1980년대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택할 수 있는 관습은 직장, 말하자면 자신의 삶을 불태울 만하다고 생각되면서 경제적 보장도 가능한 그런 직장은 사라지고 있으며 기껏 패스트푸드 음식점이나, 주유소 기름넣는 일 정도가 그들에게 떨어질 뿐이다. 마약남용, 알콜중독, 그리고 자살조차도 보다 넓은 문화적, 경제적 질병의 증후이지 당사자 개인의 질현이 아니라는 것이 저자가 내내 목청높여 주장하는 점이다.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요연하게 드러난다.

"부유하지도 않고, 백도 없는 부모를 둔 미국의 평균적인 자녀들에게는 다음의 두가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는 그냥 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아버지가 했듯이 죽을 때까지 고되고, 천한 일만 하면서 맥주나 하나님 또는 가족에게서나 위안을 찾으며 사는 것과,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적인 일을 감행함으로써 한몫잡는 일, 이 두가지이다. 더욱이 레이건시대에 들어서는 십대들로 하여금 그들 아버지가 했듯 '기계에 코를 박고 기름때로 범벅이 되는 일'로 이끌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이들 노동자 자식들도 잘 살고 싶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들은 텔레비전 광고들을 통해 기대만 한껏 부풀려 있지,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미국경제는 일종의 마약으로 취한 상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은 상태이다. 헛배런, 그러나 배 속에는 빗만 가득찬 그런 상태인 것이다. 국민들의 삶도 이와 꼭 같거니와 다만 도처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나 할까."

저자의 말 속에는 귀담아 들어야 할 지혜와 호소가 들어있다. 저자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소녀들과 스타덤에 오른 로큰롤 멤버를 꿈꾸는 소년들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이 책의 흠을 잡자면 저자가 자신의 논리를 펴는 데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청소년들 자신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루어져 독자들이 이들 증후증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좁아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출판인쇄용지 공급전문

(株)清原紙業

취급품목
백상지 · 아트지 · 서적지
중질지 · 신문용지 · 기타 특수지

출판에 필요한 양질의 종이를
다량으로 구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출판용지에 관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94-14
전화 : 704-0471~4
FAX : 704-0474

**미필적고의
라는 이름의
표지해결사**

전화/325-5363~6
팩스/325-5362

"아닌데....." 싶지만 무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답답함, '미필적 고의'가 해결하겠습니다.

출판기획

가보

하얀 여백과
신선한 아이디어와의 만남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져드립니다.

표지디자인
단행본편집 · 제작대행
광고카피 및 디자인
사보기획 · 제작
기업체홍보물(카탈로그등)

주소 : 서울시 중로구 재동 107-1 (안국전철역)
TEL : 765-9027 · 755-5558 FAX : 764-8238